

중앙교회 가정예배서

인도자 : 가족 대표

사도신경 다같이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 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 송 93장 다같이

1.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 주실 이 주 예수
2.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 은혜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추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는 이 주 예수
3.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은혜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갈 이 주 예수
4.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 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기 도 가족 중

성경봉독 요한복음 15장 1-8절 인도자

설 교 “열매 맺는 삶” 인도자

기도(합심기도) 설교자/다같이

1. 온전한 믿음, 건강한 교회로 성장하고 부흥하게 하옵소서.
2. 사순절 기간 동안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를 묵상하게 하옵소서.
3. 어떠한 상황에서도 말씀에 순종하는 용기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기도문 다같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열매 맺는 삶

요한복음 15:1-8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의 목적은 모두 하나님께 영광 돌림이었다. 당신은 어떤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요15:8).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목적도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였다. ▶예수님은 ‘열매’에 대해 여러 차례 강조하셨다.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은 열매의 중요성을 나무와 관련해서 말씀하셨다.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마7:17). 좋은 나무는 좋은 성품의 사람이 되는 것이다. 말로만 “주여 주여”하면서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 하고, 귀신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했어도 버림을 받을 수 있다. 열매는 사역이 아니라 존재다. 고난 주간 첫날에 예수님은 성전에 가시면서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를 보시고 저주하셨다. 잡히시던 날 밤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시면서 열매에 대한 말씀을 하셨다. 열매는 헬라어로 ‘카르포스’인데 본문에만 8회나 사용되었다. 우리의 삶에서 중요한 것은 성공이 아니라 열매다. 우리에게 참된 기쁨을 가져다주는 것은 성공이 아니라 열매다. 하나님은 우리가 풍성한 열매를 맺기를 원하신다. ▶성경 전체도 열매를 강조한다. 창세기 에덴동산에 열매가 있었다. 요한계시록에도 열매가 있는데, 우리는 이 복된 열매를 바라보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열두 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계22:2). 그뿐이라. 중간기를 살고 있는 우리도 열매를 많이 맺어야 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시1:3). ▶요 15에서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을 ‘농부’, 자신을 ‘참 포도나무’, 우리를 ‘가지’라고 부르신다. 농부 되신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가 맺는 열매다. 열매가 없다면 제거된다. 열매를 맺는다면 아버지께서 가지를 깨끗하게 하신다. 이는 영적인 전지 활동이다. 가지치기, 결순 제거, 엉쿨손과 욕손의 제거 등을 하신다. 다시 말해 우리 삶에서 불필요한 욕구들, 그릇된 언행 심사, 잘못된 악습, 시간과 물질 낭비, 영적 누수 등을 제거해야 한다. 꼭 필요한 영역에 시간과 물질과 에너지를 투입하고 나머지를 포기해야 한다. 말하자면 삶의 가지치기로서, 우선순위에 입각하여 삶을 재조정하고 구조 조정하는 것이다. 절제와 자기관리와 정리 정돈으로 단순한 삶을 추구하는 것이다. 이것이 온전한 제자가 되는 길이다. ▶우리의 주요 목표는 예수 안에 거하는 것이다. 요 15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표현이 ‘거하다’라는 동사다. 주님 안에 깊이 머물러 있고, 항상 연결되어 있고, 지속적으로 교제하는 상태다. 세상에는 ‘주님 밖으로’ 끌어내려는 유혹이 많다. 우리가 예수님과 밀접한 관계에 있을 때만 많은 열매를 맺는다. ‘스스로’ 열매 맺는 것이 아니라 ‘저절로’ 열매가 맺힌다. 이는 그분 말씀에 주목하고 기도하는 것을 의미한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요15:7). 그럴 때 열매를 맺게 된다. ▶열매는 기도 응답일 수도 있고 내적 결실이기도 하다.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적 결실은 내적인 변화로서, 존재뿐 아니라 삶의 방식까지도 영향을 미쳐야 한다. 많은 경우에 성령이 심어 놓은 씨앗은 말라 죽고, 성령의 열매와는 전혀 다른 열매를 수확하고 있기도 하다. 우리는 그것을 경계해야 한다. 예수님이 열매 맺은 방법은 희생과 헌신이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요12:24).